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Finance Yahoo: 연준 부의장도, “물가 둔화될 때까지 현재 금리 수준 필요”
- WSJ: 금융 투자자들, 미 소프트랜딩 기대한다... 인플레이 발표 앞두고

[미국 금융]

- Bloomberg: 뉴욕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기업들 기업 공개 늘어난다”

[원유]

- Bloomberg: 유가 약간 상승... 중국 경제의 성장 기대

[부동산]

- CNBC: 집값, 그 어느 때보다 비싸다

[미 반도체]

- NYT: 미국 반도체 지원금 또 제공.. 수혜기업은 ‘Polar 반도체’

[사이버 보안]

- WSJ: 작년에 미 기업에 대한 사이버보안 리스크 증가

[세계 인구]

- WSJ: ‘출산율 급락’에 전 세계 경악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소매업체들, ‘문제성’ 반품 고객 추적한다
- WSJ: 항공사들, AI 활용해 ‘비행운’ 예측한다
- Bloomberg: 포드, 배터리 주문량 줄여... 전기차 손실 대당 10만 달러 넘겼다
- Bloomberg: 맥도날드, 5달러 메뉴 제공한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Finance Yahoo: Fed’s Jefferson calls for holding rates steady until inflation cools further

연준 부의장도, “물가 둔화될 때까지 현재 금리 수준 필요”

- 연준 부의장인 Philip Jefferson도 물가가 둔화될 때까지 연준이 현재의 금리 수준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연준 관리들의 입장에 동조했다.
- 그는 “인플레이가 연준의 2% 목표제로 둔화되고 있다는 추가적인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때까지 연준 금리는 제약적인 영역에 계속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입장을 클리브랜드 연준의 모임에서 밝혔다.

Finance Yahoo 기사

WSJ: Investors Crowd Into Soft-Landing Trade Ahead of Crucial Inflation Data**금융 투자자들, 미 소프트랜딩 기대한다... 인플레이 발표 앞두고**

- 이번 주 수요일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가 소프트랜딩을 할 것이라고 다시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 연준 파월 의장은 최근 연준 정책 회의 이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기대감을 시사했다.
- 바로 최근 관련 지표들은 일자리와 임금 성장 압력이 둔화된 상황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도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주 수요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는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WSJ 기사

[미국 금융]**Bloomberg: NYSE President Sees More US Companies Pursuing Public Offerings****뉴욕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기업들 기업 공개 늘어난다”**

- 뉴욕 증권거래위원회의 책임자인 Lynn Martin은 처음으로 기업공개를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올해 지금까지 25개 기업이 기업 공개를 했다고 밝혔다.
- 작년까지만 해도 높은 물가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기업 공개를 하지 못했다. 한편 최근 기업공개로 Reddit와 Galderman는 대략 30억 달러를 모았다. 올해 들어 기업공개를 통해 현재까지 주식 자산이 총 1백37억 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Bloomberg 기사

[원유]**Bloomberg: Oil Edges Higher in Tight Range as Traders Weigh China Outlook****유가 약간 상승... 중국 경제의 성장 기대**

-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로 오일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나 이달 거래되었던 박스권 범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는 배럴당 79달러 이상으로 상승했다.
- 중국 당국의 장기 국채 매각 계획은 성장을 돕고 에너지 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 주식 선물도 투자 심리를 지원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부동산]

CNBC: Homes are more expensive than ever—here's how much prices have skyrocketed since 1965 집값, 그 어느 때보다 비싸다

- 미국 인구조사 데이터(U.S. Census data)에 따르면, 1965년에는 주택 구매자들이 중간 가격의 주택 구매를 위해 약 2만2백 달러를 지출했지만, 현재는 두 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환산한 '1965년의 2만2백 달러'는 약 20만2천2백15달러로, 이는 현재 중간 가격의 주택가인 42만8백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 데이터 컨설팅 기업 Motio Research에 따르면 2024년 연평균 가구 소득 중간치는 7만8천1백71달러이다. 이는 주택 구매를 위해 평균적으로 소득의 5.3배를 지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팬데믹 이후 주택 가격 상승세가 특히 두드러졌으며, 2020년 3월 이후 약 30%의 상승을 보였다.
- 이에 점점 부유한 미국인들만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Bankrate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에 20%의 지불로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려면, 14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중위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CNBC 기사

[미 반도체]

NYT: U.S. Awards \$120 Million to Chipmaker to Expand Facility in Minnesota 미국 반도체 지원금 또 제공... 수혜기업은 'Polar 반도체'

- 바이든 행정부는 오늘 월요일 발표했는데 미네소타에 소재한 반도체 제조 시설 확장을 위해 1억2천만달러를 Polar Semiconductor에 지원키로 했다.
- 구체적으로 향후 2년 내에 미네소타 블루밍턴 지역에 소재한 시설의 생산 능력을 두배 늘리고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NYT 기사

[사이버 보안]

WSJ: Cybersecurity Risk Rose in Past Year, Say Compliance Professionals**작년에 미 기업에 대한 사이버보안 리스크 증가**

- 작년 들어 미 기업들에 대한 이버 보안 위험이 늘어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이 관련 3백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밝혀졌다.
- 10개 회사 중에 9개 회사 꼴로 사이버보안 리스크가 증가했으며 거의 반 정도는 이런 리스크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 그리고 매출이 5천만불에서 10억달러 사이의 중간 사이즈 기업들의 대부분은 사이버 보안 리스크가 늘었다고 답했다.

WSJ 기사

[세계 인구]

WSJ: Suddenly There Aren't Enough Babies. The Whole World Is Alarmed.**‘출산율 급락’에 전 세계 경악**

- 전 세계 출산율이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 소득, 교육, 노동력 참여 수준과는 관계없이 거의 모든 곳에서 여성의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경제 성장 방식, 세계 강대국들의 위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 당초 인구 변화는 느리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의 ‘출생률 급락(Baby bust)’은 지나치게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다.
- 일부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여성 한 명이 낳는 아이의 수는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되는 평균적인 인구 대체율(global replacement rate)인 2.2명보다 낮다.
- 고소득 국가에서는 1970년대에 출산율이 인구 대체율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더욱 급격한 하락을 보였다. 개발도상국에서도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 작년에 중국을 제치고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로 등극한 인도조차도, 출산율은 현재 인구 대체율보다 낮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CNBC: How retailers like Best Buy, T.J. Maxx and Home Depot quietly target 'problem' returners****소매업체들, '문제성' 반품 고객 추적한다**

- 2023년에 미국 소매업체의 81%가 유료 반품 정책을 시행했다. 아마존, 메이시스, 티제이맥스, 월마트, 그리고 스테이플스 등 대형 소매업체들은 기존의 반품 정책을 수정했다. 주로 반품 기간을 단축하거나, 특정 반품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
- 미국소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소매 매출이 5조 달러 이상 발생했는데, 이 중 약 14.5%가 반품되었다. 이는 2023년에만 7천4백30억 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소매업체들은 손실 방지 서비스(third-party loss-prevention services)를 활용하여 위험한 반품 행동을 추적하고 있다. 모니터링 대상에는 사기 행위뿐만 아니라, 사기 행위를 '모방'하거나 그런 행위와 연관된 행동들이 포함된다

CNBC 기사

WSJ: Airlines Want to Use AI to Reduce Environmental Impact of Contrails**항공사들, AI 활용해 '비행운' 예측한다**

- 항공사와 기술 기업들이 환경적 요인을 줄이기 위해, 비행운(contrails)이 언제 어디서 형성되는지 예측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 비행운은 제트기가 막 비행을 시작했을 때 발생시키는 얇은 구름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제트 엔진이 배출하는 오염 물질 주변에 수증기가 응결되어 형성되는 '비행운'이, 적어도 1999년부터 기후 변화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비행운으로 형성된 구름이 항공 운항에 따른 지구 온난화의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아메리칸 항공, Google Research, 그리고 빌게이츠의 Breakthrough Energy는 인공위성 이미지와 AI를 사용하여 70번의 시험 비행을 통해 '비행운'을 관찰하고 있다. Google Research의 매니저 Dinesh Sanekommu는 "AI와 인공위성 이미지를 활용하여 비행운 형성을 파악함으로써, 항공사는 비행운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을 피하는 루트를 계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SJ 기사

Bloomberg: Ford Cuts Battery Orders as EV Losses Top \$100,000 Per Car 포드, 배터리 주문량 줄여... 전기차 손실 대당 10만 달러 넘겼다

- 포드 자동차가 전기차 시장에서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배터리 공급업체로부터의 주문을 줄이기 시작했다. 이는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플러그인 모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마디로, 전기차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 관계자에 따르면 포드는 한국의 SK On, LG에너지솔루션, 중국의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등의 배터리 공급업체와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 이러한 조치는 포드의 EV 전략의 일환이며, 해당 전략에는 배터리 구동 모델에 대한 투자금 삭감, 새로운 EV 모델 발표 지연, 그리고 배터리 공장 관련 계획 연기 및 축소 등이 포함된다.
- 포드는 올해 전기차 부문에서 최대 55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포드의 CEO Jim Farley는 “전기차 부문의 ‘Model e’가 현재 회사 전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McDonald's Will Offer a \$5 Meal Deal to Lure Customers Back Into Stores 맥도날드, 5달러 메뉴 제공한다

- 맥도날드가 미국에서 한끼에 ‘5달러’ 메뉴를 출시한다. 저가 메뉴로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고객들을 다시 유치하고자 하는 것.
-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메뉴에는 감자튀김과 음료, 그리고 맥치킨 또는 맥더블이 포함될 예정이다.
- 기업의 1분기 실적 발표에서 CEO Chris Kempczinski는 “경제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맥도날드는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Bloomberg 기사

WSJ "美 높은 주택임대료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막을 수도"

최근 임대료 상승률 둔화했지만 물가지표 주거비 반영까진 시차 "최근 주택시장 상황 고려 때 주거비 상승률 반영 시차 더 길어질 수도"

미국의 주택 임대료 상승률이 기대만큼 둔화하지 않으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를 막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낮아진 신규 임대료 상승률이 시차를 두고 물가 지표에 반영될 것이라는 게 연준의 기대였는데, 최근 주택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연준의 이런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WSJ은 진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조사업체 코어로직이 집계한 미국 단독주택 임차료 상승률은 지난 2022년 14%에 달했으나, 올해 2월 들어서는 3.4%로 크게 떨어졌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